

## Scaling과 치은소파술 시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후유 증과 그 처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학교실

한 수 부

치석을 제거하기 위하여, suprabony pocket을 제거하기 위하여, 치은비대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적인 치은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또는 그 외의 목적으로 우리는 흔히 scaling과 치은소파술을 실시한다.

치료후 약간의 동통과 출혈을 볼 수 있으나 이는 대체로 경미하므로 환자자신의 목인파(?)로 별다른 호소없이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선 술자자신에게 대단치 않은 후유증이라도 환자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scaling과 치은소파술후의 치유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몇가지 후유증의 종류와 이에 대한 처치법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첫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타진(percussion)에 대한 반응이다.

scaling이나 치은소파술을 시행한 후 하루 또는 이틀 사이에 치주인대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치주인대의 염증으로 인하여 치아는 약간 정출되며 타진(percussion)에 positive한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써 환자는 격동(throbbing pain)을 호소하며 때에 따라선 입파선에 병변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에 대한 처치로서는 우선 항생제의 투여를 들 수가 있다.

injection보다는 경구투여로 Lincocin같은 항생제를 8시간마다 2알씩 이틀정도 투여한다. 이와 함께 타진(percussion)에 positive한 반응을 나타내는 치아와의 대합치를 약간 갈아주어 교합조정을 하여준다.

또 도포마취제를 치은에 도포하여 마취를 한 다음 치은변연을 가볍게 probing하여 출혈을 야기시켜 fresh

wound를 만들어 주고 조직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치석의 찌꺼기를 제거해주고 다시 periodontal pack을 하여준다.

그 다음 환자에게 가능한 한 힘든 일은 피하고 편히 쉬도록 이르고 더운물 한 컵에 찻 숟갈 하나정도 양의 소금을 타서 매시간마다 양치질을 하라고 지시하며, 이 양치질은 다음날까지 계속하는데 이 때는 하루에 세번 정도면 족하다.

이와 같은 처치로써 대부분의 경우 환자의 호소는 사라지나 그렇지 못한 경우 endodontic한 면에서 고려해 볼도 바람직하다.

두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후유증으로는 출혈을 들 수가 있다.

출혈은 대개 치료 당일 저녁이나 2일 내지 3일후에 나타나는데 이는 혈관벽이 파괴되면서 표층혈관 주위에 염증이 발생하므로써 나타난다.

환자가 내원하였을 때 이 부위를 살펴보면 극히 작은 딸기모양에 blood clot으로 표층이 부분적으로 cover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에 대한 처치로는 3% H<sub>2</sub>O<sub>2</sub>를 묻힌 cotton pollet으로 blood clot을 제거하고 출혈점을 찾아 그 부위를 가볍게 curetts하여 주고 irritants를 제거하여 준다. 그리고 나서 cotton pellete이나 gauze pad를 치간에 넣어 압박지혈을 한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열변환와 tactile stimulation에 대한 sensitivity이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날씨가 무더운 경우 환자들의 불평은 대단하다.

찬 음식물이나 음료수에 대해 이가 시려서 못 견디겠다고 호소하며 tactile stimulation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sensitivity를 호소한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대략 아래와 같이 세가지의 원인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는 scaling이는 치은소파술을 하는 동안 치석과 함께 백아질을 제거하였을 경우를, 둘째로는 치근상아질 주위에 존재하는 대단히 예민한 granular layer of Tomes가 노출되는 경우를, 셋째로는 scaling이나 치은소파술을 받기 전에는 치석이 많이 침착되어 이 침착된 치석이 열에 대한 절연체 역할을 하였으나 이를 제거한 후에는 치근이 직접 노출되는 경우를 들 수가 있다.

이에 대한 처치로는 우선 sodium fluoride paste의

## Scaling과 치은소파술 시술후에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과 그 처치

도포를 할 수가 있다.

이 paste는 sodium fluoride에다 kaolin과 glycerin을 섞어 만든 것으로써 먼저 치면을 dry시킨 후 metal instrument를 사용하여 치면에 발라주고 약 2분간 방치하여 둔다. 그 후 더운물로 paste를 제거하고 양치질을 시킨다.

sodium fluoride는 효과가 좋고 치은에 손상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치아의 변색을 초래하지 않으나 fresh cut tooth surface에는 사용해서 안된다.

이 외의 desensitizing agent로는 zinc chloride용액, paraformaldehyde, liquid phenol, silver nitrate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silver nitrate는 vital tooth structure에 손상을 주므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 밖에 stannous fluoride prophylactic paste를 사용하여 때로 desensitization의 효과를 얻기도 한다.

국부적으로 sensitivity가 나타날 경우에는 그 부위를 약간 따뜻하게 덤힌 ball burnisher를 사용하여 clean

root surface를 문질러 줌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얻기도 한다.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후 첫번째 일주일동안에는 어떠한 desensitization을 위한 어떠한 처치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denuded root surface에다 desensitizing agent를 도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출혈로 만 미암아 desensitizing agent의 효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또는 치료후 2주 내지 3주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sensitivity가 사라지는 수가 있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치료후 첫주동안은 어떠한 처치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desensitizing agent를 사용하여 처치를 할 경우에는 치은의 수축이 완전히 끝나고 잘 발달된 상피로 치은이 cover된 후에 하는 것이 치료효과면에서 좋다고 할 수 있다.

# 아-트齒科技工所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70의1  
(73) 3452 (72) 4237

대표 文 一